

'찬란한 유산, AGAIN 백제로!'

'백제 세계유산축전' 13~29일 익산·공주·부여서 개최... 15개 프로그램 유튜브서 시청 가능

전북도는 2021년 백제 세계유산축전이 '찬란한 유산, AGAIN 백제로!'를 주제로, 오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 폐막식까지 17일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 구인 익산시와 공주시, 부여군에서 동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문화재청, 전라북도,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 백제세계유산센터 익산문화관광재단, 충남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축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축전에 올해 처음 참여하는 2021년 백제 세계유산축전은 '역동과 부흥, 그리고 공존을 테마로 지역을 초월한 축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익산 미륵사지 및 왕궁리 유적 등에서 열리는 '백제로(路) 별빛마실', '백제로 RPG', '설치미술 백제의 꿈', '백제로(路) 액터콘서트'는 아이 현장 곳곳으로 분산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관람객과 친밀했던 백제를 연결하게 된다.

유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 19 상황에 대비하여 재미있는 축전과 동시에 안전한 축전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에 철저



왕궁리 유적.

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폐막식을 포함한 15개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며 일부 행사는 안전한 방역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로 진행 된다.

본 축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세계유산축전 백제 홈페이지(www.baekjeworldheritage.kr)에서 사전예약 등 축전 전반적인 일정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기 연극감상교육 수강생 모집

군산시에예술의전당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이는 만큼 고고고!!(보고 듣고 즐기고)' 3기 연극감상교육 수강생을 13일부터 이메일 선착순(35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연장 관람예절 안내, 연극의 유래 알아보기, 발성방법 및 역할극 시나리오 짜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생들은 서울 대학로에서 인기리에 올려졌던 리얼 코메디 연극 '수상한 집주인' 공연 관람과 백스테이지 투어를 통해 연극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연극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직접 배우, 연출, 소품제작까지 자기주도형 수업진행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강생과 교사 모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학습장 소독을 진행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가족클래식(17기), 국악(27기), 연극(37기), 가족뮤지컬(4기), 뮤지컬(57기)의 수업으로 구성해 추진 중이며 관내 초등생은 누구나 수강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다.



군산시에예술의전당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이는 만큼 고고고!!(보고 듣고 즐기고)' 3기 연극감상교육 수강생을 13일부터 이메일 선착순(35명) 모집한다.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다. (http://www.gunsan.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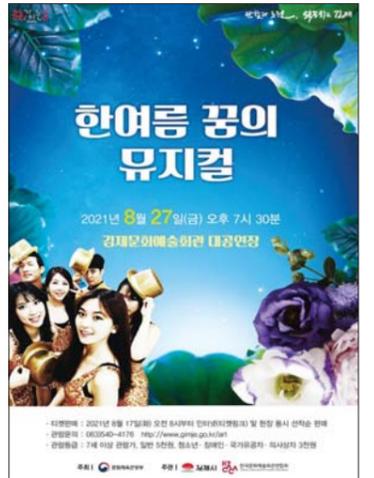
김제문화예술회관, '한여름 꿈의 뮤지컬' 공연

김제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한여름 꿈의 뮤지컬'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수많은 무대 경험과 최고의 기량을 지닌 프로 뮤지컬 단체인 드림뮤지컬이 감동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기존의 뮤지컬 갈라쇼와는 차별화된, 풍부한 레퍼토리와 탄탄한 무대 구성 및 화려한 연출이 더해진 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뮤지컬 맘마미아, 이순신, 디즈니, 쫓겨난 모짜르트 등 유명 뮤지컬의 넘버곡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파워풀한 춤과 뛰어난 라이브 노래, 관객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의 화려함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17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하늘나라 전설 광한루 달빛야행'

남원시, 9월 21일까지
매주 목금토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광한루원에서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목금토 오후 8시에 '하늘나라 전설 광한루 달빛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한루 달빛야행은 아름다운 남원의 야경을 널리 홍보하고 문화콘텐츠 다양화목적으로 판소리체험과 야간 해설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은 완월정 누각 위에서 둥근 대보름달을 바라보며 관소리 한 대목을 배우고, 어둠이 짙어지면 청사초롱을 든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사람의 다리 오작교를 지나 광한루로 발걸음을 옮긴다.

또한 광한루 누각 아래에서는 남원의 역사, 문화, 조경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이야기를 문화관광해설사가 재밌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고, 이와 함께 은은한 불빛 아래 전통미가 아름다운 한옥호텔과 돌담길의 고즈넉함이 운치를 더하는 남원 예촌도 함께 둘러보게 된다.

참가는 관광객, 시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선착순 30명 이내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타 사항은 광한루원 경의안내소(063-631-1330 남원시청 관광과 063-620-6164)로 문의하면 된다.

관광과 양민환 과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에 남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관광해설사가 들려주는
남원이야기

廣寒樓

달빛야행

2021. 8. 13. - 9. 22.
20:00 - 21:00
매주 목·토(20일간)

광한루원

광한루원경의안내소 063-631-1330
남원시청관광과 063-620-6164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